

영광군,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산업도시' 도약

송·변전망 확충·기자재 업체 유치

O&M 전문 인력 양성·센터 설립

영광군이 풍력 발전 거점을 넘어 '에너지 산업 도시'이자, '연금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햇빛과 바람에서 시작된 발전 수익은 군민 소득을 넘어 지역 산업·교육·재정 구조를 재편하며 영광형 기본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군은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등 전방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해상풍력 배후항만 및 지역산업 연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해상풍력 전용 항만 확보, 접안 시설과 송·변전 인프라 구축, 기자재·부품업체 유치, 운영·유지보수(O&M) 전문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154kV 송·변전망으로는 11GW 규모

전력 송출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전력공사에 345kV급 국가 송전망 구축을 정식 요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전용 송전망 공동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한 상태다. 에너지 산업 고도화는 고용과 기업, 교육 분야 전환으로 이어진다. 군은 O&M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고졸·청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전문대학과 기술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 인재 정착과 역량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풍력 부품 및 유지보수 산업에 지역 기업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협력사와 연계한 상생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재정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기부금, 송전선 임대료, 공유수면 사용료 등을 제외수입으로 확보해 자체 에너지 기금으로 운용, 정책 지속성과 재정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된다. 군은 2025년 마을 단위 2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15개소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상 순수익은 연간 130만원으로, 마을 공동기금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과 공유수면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도 검토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업, 고용, 교육, 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에너지 소득 도시' 모델을 통해 지방정부도 독자적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소비쿠폰 지급률 96.8%...지역경제 활력

전국·전남 평균 크게 상회

방문 접수·즉시 지급 주요

해남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지난 4일 기준 96.8%를 기록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는 전국·전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구성해 지급률 제고에 힘쓴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6만2천367명이며, 이 중 6만38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액은 총 134억3천여만원이다. 특히 해남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남사랑상품권 지류를 충분히 확보, 신청 후 즉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운영하며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명 군수는 지난 4일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무더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소비쿠폰이 풀린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며 "132억원 넘는 금액이 지역에서 사용돼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속한 지급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됐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비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해남읍 5일시장과 해남매일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 구매 시 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일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으로 견어물을 구매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 전복 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 '본격'

음식 문화·관광 시설 연계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대표 특산물 거리인 완도 전복 거리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남도 음식 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음

식문화를 육성하고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완도 전복 거리 방문의 달 운영 및 전복 요리 시식회를 통한 완도 전복 거리 홍보 ▲거리 업소별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이미지 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간담회와 전철·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이다.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완도 전복 거리를 남도 대표 음식 거리로 탈바꿈시키게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 전복 본고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고품질의 음식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며 "완도 미식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는 지난 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제2의 안세영' 키운다...나주시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운영

초등 30명 대상...방학 기간 중 연 2회

나주시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패기를 기념해 유소년 대상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 인재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배드민턴 여제'로 불리는 안세영 선수의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미래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했다. 개강식에는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을 비롯해 안세영과 이용대 선수를 지도한 최용호 감독을 포함한 지역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소년들을 응원했다. 배드민턴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생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운영하며 전문 코치진의 지도 아래 기본기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며 재능을 발견했던 실제 사례를 반영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배드민턴 교실을 통해 제2의 안세영을 꿈꾸는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꿈을 찾고 재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주시는 안세영 선수의 빛나는 발자취를 기념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 정책과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무안군청 전 직원들이 지난 4일 무안읍 주요 시가지와 도로에서 토사 제거, 쓰레기 수거, 배수로 정비 등 일제 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신속 대응·피해 최소화

무안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무안읍에는 시간당 113.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었고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군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전 직원의 절반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피해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섰다. /무안=김상호 기자

김상 무안군수는 같은 날 오후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신속한 복구 조치와 주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4일 오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무안읍 주요 시가지와 도로에서 토사 제거, 쓰레기 수거, 배수로 정비 등 일제 복구 활동을 벌였다. 김 군수는 "이번 폭우로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군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 복구 뿐 아니라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시, 취약계층 연탄쿠폰 신청 접수

29일까지...가구당 47만여원 지원

목포시는 5일 "오는 29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탄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며 가구당 47만2천원을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연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천승환 전략산업과장은 "연탄쿠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행·바다·휴식...도서관서 즐기는 여름 정취

영암 삼호도서관 '여름 북큐레이션' 운영

영암군 삼호도서관은 5일 "오는 17일까지 '여름, 책과 함께 떠나는 휴가'를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시는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여행·바다·휴식 등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설, 에세이, 그림책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선보인다. 대표 전시 도서는 김신희의 에세이 '아무튼, 여름', 성해나의 소설 '두고 온 여름', 이꽃님의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서영길의 여행 에세이 '남는 건 사진뿐이지도 몰라', 토마씨의 그림책 '여름을 부탁해!' 등이 배치돼 있다. 최태진 삼호도서관장은 "더운 여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책과 함께 충분히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마련했다"며 "계절과 주제에 맞는 다양한 북큐레이션으로 이용자들에



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도서는 대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삼호도서관(061-470-68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